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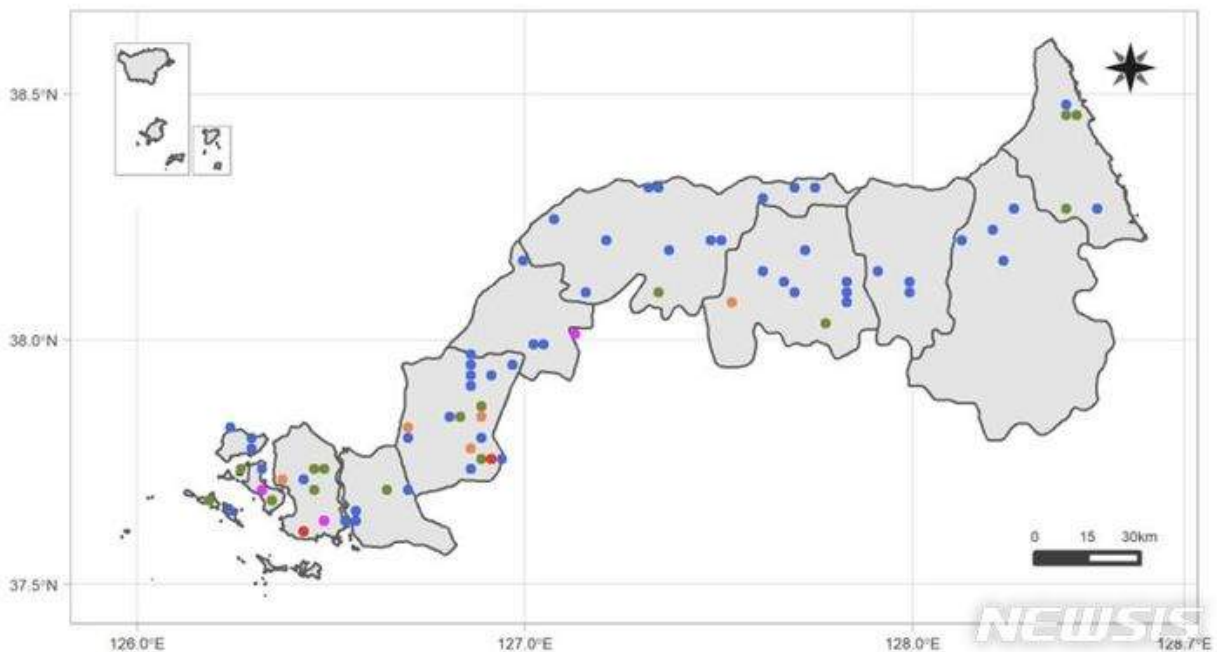
국립수목원, 'DMZ 관속식물 분포도' 발간

등록 2021.12.24 15:31:38

0069

가는잎족제비고사리 | Narrow-leaf buckler fern 관중과

Dryopteris chinensis (Baker) Koidz.



DMZ 관속식물 분포도 예시. (사진=국립수목원 제공)

[포천=뉴시스]김도희 기자 =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비무장지대(DMZ)와 접경지역의 우수한 식물다양성을 알리고 보전가치 확산을 위해 'DMZ 관속식물 분포도'를 발간했다고 24일 밝혔다.

DMZ 및 접경지역은 북방계와 남방계 식물이 공존하는 지역으로 접경지역 내 150개 산지 중 24%만 조사돼 식물조사가 시급한 지역이었다.

이번 분포도는 지난 2013년부터 9년간 접경지역뿐만 아니라 남방한계선 철책 248km 및 DMZ 식물 분포 조사 결과를 종합한 것이다.

해당 지역에 자생하는 2331종 중에서 증거표본에 의해 분포도 작성이 가능한 약 1800여종의 식물 분포 정보를 담고 있다.

2016년 한국 관속식물 분포도 이후 5년 만에 발간되는 이번 DMZ 관속식물 분포도는 자두나무를 비롯한 108 분류군 분포도를 최초로 제시했다.

쇠물푸레를 포함한 890 분류군의 신규 분포점을 확인하는 성과도 거뒀다.

특히 이번 분포도에서는 식물표본 수집 빈도에 따라 색을 달리 표시해 식물의 중점 분포 지역을 확인할 수 있다.

국립수목원 DMZ산림생물자원보전과 길희영 박사는 “지난 9년간 노력의 결과인 분포도는 DMZ 내 자생식물의 분포정보를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비무장지대의 생물다양성의 보전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며 “분포데이터의 국제적 공유를 위해 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GBIF)에도 등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발간하는 분포도는 국립수목원 누리집에서 누구나 확인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